



여류과학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李日夏 교수

脂肪섭취 따른 '비만' 집중연구

오는 7월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가정학회의 준비로 바쁜 중앙대 사범대 가정교육학과 이일하교수. 아시아가정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교수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유학하여 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인의 식생활패턴에 따른 영양문제」로 특히 지방섭취에 따른 비만상태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학 연구가 재조명되고 학회 활동도 활기를 띄어 무척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이일하(李日夏)교수는 오는 7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9회 ‘아시아가정학회’ 준비로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

“21세기를 향한 가정학 신 패러다임 그 도전과 전망”이란 주제로 실시될 이번 학회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17개국이 참여하는 권위있는 행사로 매 2년마다 개최되

고 있다.

아시아가정학회 사무총장 맡아

아시아가정학회의 활동은 가정학 발달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저개발국의 국민복지나 기타 학술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외에도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선 가정학회의 멤버중에 국가 지도층이 많아 여성인권운동에도 영향을 미칠만큼 힘있는 학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교수는 현재 아시아가정학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데 아시아가정학회

회장이며 연세대 교수인 문수재(文秀才)교수의 지도가 오늘날 이교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문교수는 이교수가 대학교 3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한 영양학 지도를 맡았었는데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양학분야에 대한 소개와 획기적인 실험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교수는 대학시절부터 그래서 뜻 맞는 친구와 함께 논문을 써보겠다고 결심하고 저울을 들고 서울 시내에 있는 대중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일품요리중 가장 영양가가 많은 식품이 무엇인지를 직접 조사도 해보았는데 그 결과 영양가가 가장 높은 음식은 비빔밥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정학 중에서도 영양학분야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영양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국내는 여러 가지로 공부할 여건이 아니어서 외국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을 때는 어머니가 기절할 정도로 여자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큰 뉴스인 시절도 있었노라고 회고한다.

美 텍사스대 박사학위

마침 이교수가 유학을 떠난 곳은 미국 텍사스주립대로 당시 이대에서 가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영양학으로 포스닥을 한 김숙희(전 교육부 장관)교수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교수의 지도교수는 김교수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Pauline Berry Mack교수로 미국에서도 저명한 영양학자.

미 NASA프로젝트중의 하나였던 우주비행사들의 영양상태를 연구하던 끝에 우주비행사들이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뼈에서 무기질이 눈에 띄게 빠져나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다 뼈의 밀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이 도구와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오늘날 골다공증을 측정하는 방법이 된 것.

골다공증 측정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장본인이기도 한 Mack교수는 개인적으로 박사학위가 다섯개나 될 정도로 학문에 조예가 깊은 학자라고 한다. 따라서 이교수도 지도교수의 영향으로 NASA프로젝트중의 하나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냈다.

이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한

국인의 식생활 패턴에 따른 영양문제」로 고혈압을 비롯한 동맥경화증이 식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곡류 위주의 식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영양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이교수는 1980년대부터 지방 과다섭취로 인한 비만실태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강단에서 영양학을 가르칠 때 먹는 것을 가지고 예를 많이 드는데 초창기에는 영양결핍에 관해서 주로 예를 많이 들었으나 요즘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영양과잉 상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예가 많아졌다고 전한다.

이교수는 72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당시 지금의 부군인 변중서(卞鍾瑞; 현 서강대 부총장)교수를 만났다. 그 당시 유기화학으로 포스닥을 하고 있던 변교수는 학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여자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폭넓게 이해해 주어 지금까지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슬하에 두딸을 두고 있는 이교수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큰딸과 연세대에 재학중인 작은딸 역시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 본인들이 원한다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 두딸의 어린 시절에는 늘 집에 엄마가 없어서 불만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남편인 변중서교수가 엄마의 입장을 더욱 많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시아버님도 학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분으로 이교수가 활동을 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한다. 특히 이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주었고 아이들을 한참 돌보아야 할 때도 시댁에서 두아이를 맡아 길러주신 것은 아직까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교수는 여자가 활동하는데 우선 가정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것은 사회의 그 어떤 제도보다도 많은 힘이 된다고 강조한다.

영양정보센터 운영계획

오히려 이교수가 사회에 나와서 부딪친 것은 가정학에 대한 편견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가정학회나 영양학회에서는 근간의 연구성과나 보고를 여러 채널을 통해 소개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아울러 이 분야 관계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교수는 영양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잘못된 건강상식이나 사이비영양학자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영양학자들이 학회에서 학문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일반대중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를 만들기 위하여 97년 상반기 영양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회를 통해 들어오는 신속한 영양정보를 보급하고 영양에 관한 지식이 오도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앞으로는 PC통신을 통해서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정실(객원기자) ㉮